

1960년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연구*

김 중 성**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운동의 두 지도자
 - 1. 이윤근 교육감
 - 2. 김두홍 장학사
 - III. 적극적인 장학 활동
 - 1. 학교도서관 장학 계획 수립
 - 2. 도서관 라인학교 운영
 - 3.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안 마련
 - 4. 도서관 시범·연구학교 운영
 - 5. 사서교사 교육과 배치
 - 6. 교장, 교감, 교사의 도서관 교육
 - IV. 창의적 재원 조달 활동
 - 1. 학생근로 활동을 통한 재원 조달
 - 2. 재원 조달 활동의 성과
 - 3. 재원 조달 활동의 원동력
 - V. 운동 전개 특성
 - 1. 교육행정 당국의 정열적 리더십
 - 2. 체계적인 장학 활동
 - 3. 진도적 운동 전개
 - 4. 전략적 프로그램 운영
 - VI. 나오며
- 참고문헌
Abstract

I. 들어가며

1960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큰 조류는 사실 지방 단위의 다양한 활동이라는 여러 지류가 하나로 통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학교

* 1963년 1월 1일부로 부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상남도가 분리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전개되는 운동 양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2 圖書館學論集(第 29輯)

도서관 운동에 있어 중앙 교육행정 당국의 지도력이나 법률상의 규정은 현장 사서교사들의 열의나 몇 몇 앞서가는 지방 교육행정 당국의 지도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196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의 진면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 단위의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운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한 지방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학교도서관 운동 전성기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당시 교육행정 당국과 학교 경영자, 그리고 사서교사들의 역할과 인식까지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근대적 학교도서관 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곳으로서 줄곧 그 선두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타지방의 도서관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상남도 지방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경상남도 지방은 이미 1950년대 초에 근대적 학교도서관을 시작하여 교육 혁신을 꾀했으며 1950년대 후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과급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¹⁾ 1960년대를 지나면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더욱 더 발전적인 모습을 띄게 되어 도서관 설치율과 장서수 등에 있어 이미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1967년과 1968년의 각 지방의 학교도서관 현황과 장서수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 시도별 학교도서관 및 장서 현황, 1967-1968²⁾

지 방 구 분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937	129	446	27
도서 관수	1967 2,956	95	103	332	202	80	200	405	937	129	446	27
	1968 3,324	88	103	379	212	95	219	658	874	165	494	34
총장서수(권)	7,113,333	341,058	297,907	1,095,940	412,754	186,284	459,935	1,177,991	2,095,188	226,622	752,454	67,200
학생 1인당 책수(권)	1.41	1.5	0.8	1.6	1.4	1.6	0.7	1.2	2.8	1.1	1.2	0.8

1)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 53권 3호(1998 가을), 77-118쪽.
 2) 조재후, "1968년도의 학교도서관계", 도협월보, 10권 1호(1969. 1. 2), 28-32쪽.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 수와 장서수에 있어 경상남도는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으며 특히 학생 1인당 책수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여 타시도와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발전 상황은 외국의 도서관 전문가의 눈에도 무척 인상적으로 비쳤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 지방에 있어서의 학교도서관 발전 수준은 인상적이다. 전도적(全道的)인 흠잡을 데 없는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련의 시범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있거니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도서관의 현대적 봉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개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가정대출이 권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도서관 비품은 그 지방 자체에서 제정된 흠잡을 데 없는 표준 규격에 맞추어서 제작되고 있다.³⁾

그럼 이처럼 경이적이라 할만한 발전을 보인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어떤 힘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을까.

II. 운동의 두 지도자

경상남도 지방은 우리 나라 근대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타시도에 비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1960년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발전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62년에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2년에 경상남도 교육감에 이윤근 교장이 취임하고 그 뒤를 이어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경남고등학교 김두홍 사서교사가 도교

3) David Kaser 등저, 김두홍·정필모 역, "아시아 8개국의 도서관 발전",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55쪽.

육위원회 연구사를 거쳐 장학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이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를 풍성하게 하는 1960년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것이다. 도교육위원회 교육감과 장학사라는 지방 교육행정의 두 핵심 지도자에 의해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모범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1. 이윤근 교육감

이윤근은 일선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표방한 교육 방침이 교육의 질 향상이었다. 그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원, 교재, 교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그는 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장학 방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장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며, 그 신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으며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건 내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얻은 신념입니다. 책을 안 읽으면 안됩니다. 책을 안 읽고 요즘처럼 컴퓨터 두들겨서 몇 개 알아내고 하는 것은 백 년 해도 공부 안됩니다. 가령 이조 농업사를 연구하는데 컴퓨터 두들려서 소가 몇 마리다, 학자가 누구누구다, 어느 임금 때다, 그것만 알고 다른 것은 안 읽으면 공부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이 필요하고 광범위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도서관이 발전해야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을 안 읽고 컴퓨터 교육 그것만 가지고는 학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데만 애들이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거 큰 문제입니다. 내가 그때 강조한 것은 학교에 책이 많아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때로는 선생이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가령 선생이 홍길동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에서 홍길동전에 대해서 많이 읽으니까 선생님보다 많이 아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 만큼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내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데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는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서교사 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교 교장 교감 교육을 강화 시켜서 학교도서관이 잘되어야 교육이 잘되는 겁니다.⁴⁾

그리고 박태신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타시도에 비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이윤근 교육감의 역할을 들고 있다.

학무국이 교육위원회로 바뀐 후 경상남도 초대 교육감이 이윤근 교육감입니다. 그 때 김두홍 선생이 도서관 담당 장학사로 있었어요. 이윤근 교육감이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 밑에 있던 김두홍 장학사가 기안을 해 가면 무조건 도장을 찍어 주고 더 추가해서 격려하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조달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리 이삭 줍기, 가을에 벼 이삭 줍기 해서 돈을 마련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까리 알니까? 피마자 말이지요. 그것을 주워 팔아서 도서비 마련하고 폐품 수집도 해서 도서를 구입했어요. 아주 맹렬하게 했습니다. 이 분이 경남 시골 방방곡곡에 도서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때 경남이 아주 활발했지요.⁵⁾

이윤근 교육감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합한 인물로 장학사를 선발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강습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전도에 끌고루 배치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소신 있게 장학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가령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 강습을 해서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급 자격을 가진 사람,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각 학교에 강제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도서관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독서 지도를 하도록 했지요. 그 다음에 체육교사를 양성해서 자격을 주어 각 학교에 배치하고, 과학 교사를 양성하고 예능관계 즉, 음악, 미술 관련 교사를 양성해서 각 학교에 강제로 배치를 했어요. 전부 배치를 해 놓으니까 각 학교들이 그 방면의 교육이 좋아지는 거지요. 교육감이 위에서 누르니까

4)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1998. 2. 18, 10:00-12:00, 이윤근 선생 자택.

5)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1998. 2. 13, 14:00-16:30, 부산교육대학 앞 「늘노래 선교단」 사무실.

6 圖書館學論集(第 29輯)

학교에서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①

이렇게 하여 이미 경상남도의 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은 핵심 내용이 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도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윤근은 당시 경상남도의 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상과 도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 있다. 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 교육계에는 온갖 바람이 불어오고 또 불어 갔다. 그것들은 모두 바람이어서, 불어 간 뒤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 학교도서관도 이 같은 한 가지 바람이겠는가? 아니다. 학교도서관은 우리 도의 경우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에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려면 학교교육 자체를 크게 손상시키게 될 판이다. 우리의 학교도서관이 이만큼 자라난 것은 첫째 우리 일선교사들의 공으로 돌려야 하겠지만, 행정을 맡은 우리가 그 방면의 인재를 구해서 지도력은 심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준 까닭이라고 본다.②

이와 같은 도교육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장학 활동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타시도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모범적인 학교도서관 장학 활동은 타시도에 많은 자극을 주고 학교도서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마 1964년이었을 겁니다. 대통령 초도 순시 때 내가 경남 교육에 대해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을 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반해버렸습니다. 내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세 번이나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하나 하면 경남에 전국의 학무국장을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켜라. 또 조금 있다가는 전국 교육감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라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전국 교육감 회의를 경남에서 했어요. 교육감 회의는 서울에서만 하는데 경남에서 하게 된 것이지요. 진해에서 교육감 회의를 하고 진해와 김해지역의 학교도서관을 둘러

6)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7)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경남교위의 66년도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도협월보**, 7권 4호(1966. 5), 31쪽.

보았지요. 그렇게 경남에서 교육감 회의를 한 후에 전국에 도서관이 퍼졌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전국에 확산이 되었어요.⁸⁾

물론 1950년대 후반기부터 경상남도 이외의 타시도에도 학교도서관 운동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성장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1964년에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전국교육감회의가 학교도서관 운동 촉진의 절대적인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운동에 있어 도교육위원회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몽하고 그 방법을 전파시키는 측면에서는 이 모임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증언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윤근 교육감은 경상남도에서의 많은 업적과 계획을 뒤로한 채 1969년 부산시 교육감으로 옮겨가게 된다. 부산으로 옮겨간 뒤에도 여전히 학교도서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였으나 경상남도와는 여건이 달라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1969년에 내가 부산 교육감으로 옮겨온 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도서관 활동을 했는데 참 어려워요. 경남보다 더 어려워요. 부산은 시키는 대로 안하고, 말 많고, 일 많고 부산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도 부산도 많이 발전했지요⁹⁾

2. 김두홍 장학사

이윤근 교육감과 함께 경남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김두홍 장학사이다. 김두홍은 이미 1956년부터 학교도서관 운동의 최전방에서 눈부신 활동을 해온 선구적 인물로서 1962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연구사를 거쳐 1963년부터 장학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새 단계를 열어 가는 주인공이 된다. 학교도서관 전문가로서는 최초로 교육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서게 된 그는 이윤근 교육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교도서관 장학지

8)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9)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도 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등 운동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장학 활동을 전개하면서 장학사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었으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장학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사들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장학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을 때라 경남 안에서도 깊은 산골이나 섬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마치 유배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장들이 좋은 학교, 편한 학교에 발령 받기 위해서는 장학사들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장학사들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동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효과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자리가 뭐 도서관 담당 장학사다라는 식으로 이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장학사 업무 이외에 맡은 일이 도서관 담당이었던 거지요. 교육감이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장학사에게 그 일을 명시적으로 분담시킨 겁니다.¹⁰⁾

김두홍은 장학사로서 도의 학교도서관 장학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당국의 입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교도서관 강습회에 단골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전국학교도서관대회 등을 통해 경상남도 지방의 운동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김두홍은 1966년에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어 전국의 도서관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지만 그 전성기를 지나고 있던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10)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1998. 2. 19, 14:00-16:00, 김두홍 선생 자택.

Ⅲ. 적극적인 장학 활동

경상남도 지방이 타시도에 비해 학교도서관 운동이 월등히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과 장학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적 요소가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성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장학 활동이 필수적이다. 지도자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합리적이며 실제적인 장학 지도 방침이 마련되어 현장의 활동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육행정 당국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요체이며 운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간인 것이다. 이 점에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타시도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앞서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 학교도서관 장학 계획 수립

이윤근 교육감, 김두홍 장학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당시로서는 타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훗날 낼 수 없는 탁월한 장학지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발표한다. 이 장학지도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전문가의 식견에 의해 전략적으로 입안된 것이었다. 1963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지도계획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 가지 사업과 도서관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지침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운동을 주도한 사람에 의해 입안된 계획답게 전문적인 원리와 내용 면에서 세련되었으며 종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63년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확정된 학교도서관 장학계획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3년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지도계획〉¹¹⁾

A. 시범학교 도서관 지도

1. 시범학교 지명

1월 중으로 도교육국에서 중학교 12개교 및 고등학교 8개교를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시범학교로서 지명하고, 각 시·군 교육과로 하여금 국민학교 2개교씩을 시·군 학교도서관 시범학교로서 지명하게 한다.

2. 현장지도 및 상담지도

2월에서 8월까지의 사이에 국민학교 시범도서관은 각 1개씩, 그리고 중학교 시범도서관은 각 2개씩 도교육국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가 현장에 출장 지도한다. 또한 시범학교 관계자에게 도교육국을 방문하거나, 서신에 의하여 시범도서관 운영상의 제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도록 권장한다.

3. 시범도서관 견학 및 협의회

9월에서 11월까지의 사이에 중학교 시범도서관은 각 시·군 교육과의 계획에 의하여 견학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 발전책 및 학교도서관 봉사상의 제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B. 학교도서관 연구학교 지도

1. 연구학교 지정

1월 중으로 초·중·고 각 1교씩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서 지정한다.

2. 현장지도 및 상담지도

2월에서 9월까지의 사이에 각 연구학교에 대하여 2회 이상 현장에 출장하여 연구방향에 대한 지도와 연구경과에 대한 검토를 행하며, 연구학교 관계자에게 도교육국 및 교육연구소를 방문하여 상담지도를 받도록 권장한다.

3. 연구발표

10월 중으로 각 연구학교는 도교육연구소의 계획에 의거하여 주어진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C. 강습회 개최

1. 4월 중에 6일간 국민학교도서관 시범학교 교사 52명(각 시·군 2명씩)의 강습회를 개최한다.

2. 8월 중에 9일간 도내 중·고교 사서교사 60명의 강습회를 개최한다.

11) 경상남도 교육국, "1963년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지도계획", **도협월보**, 4권 2호(1963. 3), 32-33쪽.

D. 참고서 발간

9월 말에 국관 200명의 『학교도서관 핸드북』 1,500부를 간행하여 도내 전 초·중·고교 및 국내 중요 교육기관에 무상 배부한다.

E. 도서배가 운동

도비보조(국민학교는 학급당 연 1,000원, 중·고교는 2,500원), 학생자치회비, 학생근로(이삭줍기, 폐물수집, 제배사육 등)에 의한 소득으로 장서의 배가를 꾀한다.

F. 학교도서관 실태조사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도내 학교도서관 실태를 조사하여 1963년도의 지도 결과를 반성하고, 1964년도의 지도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삼는다.

· 도서관 시범학교 운영지침

<국민학교>

1. 시범학교 도서관은 명실공히 시범적이어야 하며 다음 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도서실의 수용능력은 최소한 60명이어야 하며 면적은 수용인원 1인당 0.35평을 내리지 못한다.
 - b. 비품은 규격과 설계가 표준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열람용 책걸상, 서가, 버어터칼 파일링, 캐비닛, 잡지가, 신문가, 전시가, 카야드 상자 및 사서 테이블을 갖추어야 한다.
 - c. 장서수는 최소한 시범학교 재적학생수의 2배로 한다. 다만 잡지, 팜플렛 등은 장서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 d. 도서분류는 국민학교도서관용 '듀이 10진 분류법'에 의거할 것이며 그 밖의 도서정리작업에 있어서도 표준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1963년 8월 말까지 시범도서관을 완성시켜서 9월부터 시·군 자체계획에 의하여 관내 교직원, 학부모, 어린이회 대표 등에게 견학시킴으로써 국민학교 도서관 보급에 최선을 다한다.

<중·고등학교>

1. 시범학교 도서관은 1963년 8월 말까지 다음 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도서관의 수용능력은 최소한 학생정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은 수용인원 1인당 0.5평을 내리지 못한다.
 - b. 도서관 비품은 규격과 설계가 표준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열람용 책걸상,

서가, 버어티칼 파일링, 캐비닛, 목록 카이드상자, 잡지가, 신문가, 전시가, 전서관, 북트럭, 카운터, 사무용 책걸상을 갖추어야 한다.

- c. 장서수는 최소한 학생정원의 3배가 되어야 한다. 다만 잡지, 팜플렛 등은 장서수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 d. 비도서 자료로서 최소한 6종 이상의 잡지, 4종 이상의 일간신문 및 버어티칼 파일을 유지하여야 한다.
- e. 도서분류 편목, 도서장비 등 정리 작업은 표준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
- f.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국식 안전개가제'를 채택한다.
- g. 사서교사의 주당 수업시간 수를 16시간 이하로 경감하고 도서관 업무이외의 교무를 감면하여 도서관 운영과 연구에 열중할 수 있게 한다.

2. 1963년 9월부터 도교육국의 계획에 따라서 시범도서관 견학을 실시한다.

1964년의 장학지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두홍 장학사는 '학교도서관 운동은 이제 일선 교사들에게만 맡겨둘 단계를 지났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교육행정 당국이 이 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인 지원과 지도에 나설 시점에 이른 것이다¹²⁾'라고 하면서 교육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장학 활동을 촉구한다.

1964년의 장학지도 계획은 1963년의 계획에 비해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줄어든 반면 장학지도의 방침과 도서관 교육의 목표,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도교육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도서관 라인 학교'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학지도 활동이 점점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 가며 전략적인 성격을 강화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1964년 학교도서관 장학지도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 김두홍, "학교도서관 장학지도 계획 -경남도교위의 64학년도-", **도협월보**, 5권 2호(1964. 3), 6-7쪽.

(1964년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장화지도 계획)

(一) 장화지도의 방침

1963년 10월 28일자로 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제3장 25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학교가 최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二) 도서관 교육의 목표

1. 학습활동(교과학습 및 특활)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태도를 기른다(자율 학습).
2. 수준이 다른 자료를 마련하여 우수아와 지진아에게 각각 정도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여 능력별 지도를 행한다(능력별 지도).
3.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여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세계를 인식시킨다(시사 교육).
4. 다양성 있는 집서 구성에 의하여 학생들의 개성 신장을 꾀한다(개성 지도).
5. 도서관 이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민적 도덕적 성장을 꾀한다(사회성 지도).
6.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도서관 이용지도).
7. 여가의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여가 지도).
8. 도서관 자료를 향토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향토민의 계발에 기여한다(향토 봉사).
9. 집서 구성에 있어서 각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시킴으로써 그 학교의 특수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특수교육목표).

(三) 지도상 유의점

1.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편목, 도서정비 등)에 있어서는 자기류를 삼가고 표준적 방법을 따르게 한다.
2. 장서의 구성은 일부 교과 또는 특수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각 분야에 걸쳐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3. 도서관 비품은 규격에 맞고 색채와 디자인이 현대적 감각을 지닌 것을 마련하도록 한다. 따라서, 학교관리자는 비품구입에 있어서 각학교의 사서교사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비도서자료 특히 버어터칼 파일(인포메이션 파일)의 수집과 활용을 권장한다.

(四) 중요 사업

1. 도서 배가운동

1964년 말까지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학생 1인당 1책을 확보한다(현재 1인당 0.55책).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생 1인당 2책을 확보한다(현재 0.95책). 이 일을 위하여 의무교육비와 도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모조를 하는 한편 학생자율경비의 최대활용과 학생근로(이삭줍기, 폐품 수집, 재배 사육 등)에 의한 도서관 입자금 조달운동을 적극 권장한다.

2. 도서관 라인 설정

김해(구포교)를 기점으로 하여 진주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있는 20개교(국민교 10교, 중교교 10교)를 도서관 라인 학교로서 정하여 학교도서관 시범활동을 강화한다. 도서관 라인 학교로서 지정된 학교는 도서관 시설, 자료, 직원 및 운영이 타교에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3. 사서교사 훈련

연내에 국민교 도서관 담당사 52명(장학사 26명, 교사 26명) 및 중교교 사서교사 60명에 대하여 9일간(54시간)의 실무강습을 실시한다.

4. 도서관 시범학교 육성

국민학교는 각 시·군 1개교 이상 학교도서관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모범적인 도서관(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중점적 재정지원을 행한다. 그리고 1964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968년까지에는 모든 국민학교가 도서관 시범학교를 거치도록 한다.

중고등학교는 5개의 학교도서관 시범학교(도시형 2교, 소도시형 2교, 농촌형 1교)를 지정하여 도내 여타 학교에 시범한다. 시범학교로서 지정된 학교에서는 기성회비 등에서 도서관 설치 또는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엄출하도록 지도한다.

5. 도서관 연구학교 지도

마산시 소재의 성지여자중고등학교를 1963학년도에 이어서 계속 본도의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서 지정하여, '도서관을 통한 조사학습의 연구'라는 주제 아래, 학교도서관이 학습지도법의 개혁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하고 있다.

1965년의 학교도서관 장학 계획에서는 이전의 사업이 대체로 지속되면서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도 단위에서 표준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도 교육위원회의 1965년도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중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표 2>와 같다.¹³⁾

〈표 2〉 1965년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육성 계획

사업명	목표량	기간	내용
사서교사 양성	초등: 52명 중등: 40명	7월~ 8월	·초등은 9일간(54시간)의 기초훈련 ·중등은 4주간(320시간)의 사서교사 자격취득 강습(도 주최 35, 문교부 주최 5)
학교도서관 운영지침 시달	초중고에 배부	1월	·도의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제시
선정도서목록 작성 배부	4회	3,6, 9,12월	·마산 및 진주에 우량도서추천위원회를 조직, ·도교위는 양지구에서 추천한 도서목록을 수합 하여 경남도교위 선정도서목록을 작성 배부함 ·《교육경남》에 게재하여 전 초·중·고에 배부
도서관 교육 과정 작성	초중고별	3월~ 6월	·진주지구 우량도서 추천위원회에서 국민학교 과정 시안을, 마산지구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시안을 작성시켜 도교위에서 수정하여 도안 작성함
장서 확충계획	초등: 278,270권 중등: 123,845권	1월~ 12월	·도비, 자율경비, 기성회비, 학생근로소득에서 자금 염출 ·초등은 학생 1인당 0.5권, 중등은 1권 목표
도서관 라인 학교 육성	초등: 27개교 중등: 18개교	1월~ 12월	·도내 간선도로변에 모범적인 학교도서관을 육 성시킴
도서관 시범 학교 육성	초등: 38개교 중등: 5개교	1월~ 12월	·학교규모에 따라서 5구분하여 각기 규모에 상 응한 모범적 도서관을 육성시킴
도서관 연구 학교 지도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	1월~ 12월	·울산국민학교-도서관학습 ·낙동중학교-대지역사회봉사

1966년의 장학계획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계획된 사업의 종류가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그 내용도 훨씬 강화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서확충 계획과 도서관 라인 학교 운영 계획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장학 계획과 함께 도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장서확충, 시설확충, 사서교사의

13) 김두홍,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현황보고", **도협월보**, 6권 5호(1965. 6), 25쪽.

확보, 도서관 시범학교, 라인학교 운영, 도서관 운영 일반 등으로 나누어 시달한 운영 지침은 참조나 권장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강한 의지와 전문적인 지도력을 확인하게 해 준다. 한편 이 지침은 세밀하고 방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모두 준행하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표 3〉 1966년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육성 계획

사업명	목표량	기간	내용
장서확충	242,622권 (급년도 증가목표)	1월~ 11월	· 급년도 목표량 137,000권+작년도까지의 미달량 105,622권=242,622권 · 각학교는 급년도에 장서수가 학생 1인당 4권에 달하여야 하므로, 연말까지의 총목표량은 512,000권임.(128,000명×4권=512,000권) · 월별로 보고한다.
시설확충	전용도서관 12 겸용도서관 29	1월~ 11월	· 6학급 이상의 학교는 전용도서관을, 그 이하의 학교는 교실 기타 겸용도서관을 설치한다. · 전용이거나 겸용이거나 도서관(실)으로서 공인되기 위하여서는 장서가 500권 이상 되어야 한다.
사서교사 양성	A급 105명 B·C급 19명	1.7 ~8월	· A급(유자격 사서교사) : 도주최 100명, 문교부주최 5명 · B·C급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지구별로 실시할 것임
선정도서 목록작성 배부	4회	3.6,9, 12월	· 65년에 조직된 마산, 진주지구의 우량도서 추천위원회에서는 2,58,10월 말에 추천 도서목록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 양지구에서 제출된 목록을 수합하여 <<교육경남>>에 게재한다.
도서관 교육과정 작성 배부	1회 350부	3월	
학교도서관 실태조사	4회	3.6, 9,12월	· 보고서식 작성 배부할 것임
1966년도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서 작성 배부	1회 350부	2월	· 65년도 운영지침서를 수정 시달함

14)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경남교위의 66년도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도협월보**, 7권 4호(1966. 5), 31-34쪽.

사업명	목표량	기간	내용
도서관 라인 확충	A라인 20개교 B라인 10개교	1~12월	A라인(김해-진주) : 낙동중, 김해중, 김해농고, 김해여중고, 진영중농고, 마산공고, 마산상고, 마산동중, 마산고, 성지여중고, 마산제일여중고, 진진중, 군북중, 함안여농고, 반성중, 진주남중, 진주고, 진주중, 진주여중고, 대아중. B라인(동래-울산):기장중상고, 장안중, 남창중고, 울산농고, 울산중, 태화중, 방어진중, 농소중, 언양중농고, 상북중고
도서관 연구학교 지도	4회	3,6,9,11월	·연구학교 : 낙동중학교 ·연구주제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봉사
도서관 시범학교 지도	5회(각교 1회)	3, 11월	·가락중, 거제해성중고, 중별여중, 양산중농고, 함안중농고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운영 지침)

1. 장서확충

- 1) 각 학교에서는 11월말까지 학생 1인당 4권의 장서를 확보한다.
- 2) 이미 목표량을 달성한 학교에서는 연간 학생 1인당 0.5권씩 장서를 증가시킨다.
- 3) 학교별로 최대한의 도서구입자금을 확보한다.
 - ① 학생자율경비의 활용 : 학생 1인당 연간 180원 이상
 - ② 도비(사립학교는 법인비)의 활용 : 학급당 1,000원 이상, 교사 1인당 500원 이상
 - ③ 학생근로소득의 증대 : 이삭줍기, 폐품수집, 사육재배, 종자채집 등으로써 학생 1인당 220원 이상
- 4) 65년도까지 실적부진한 학교(학생 1인당 3권 미달교)는 상기 3)항에서 제시한 예산외에 미달분을 달성시킬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여야 한다.
- 5) 잡지류는 장서로서 계산하지 않는다.(다만 합철제본된 것은 예외)
- 6) 동창회, 기성회, 지방유지, 지방출신유력자 등을 통한 도서기증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2. 시설확충

- 1) 모든 학교는 반드시 도서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규모 학교(5학급 이하)로서 전용도서관(실)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교실 기타를 겸용하는 겸용도서실이라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6학급 이상의 학교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전용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도 이에 준한다.)

3. 사서교사의 확보

- 1) 4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는 자격취득강습을 이수한 사서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교육위원회에서 강습 차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강시켜야 한다.
- 2) 본 강습은 상급자격취득강습이 아니므로 차출된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공립학교는 도교위에서, 사립학교는 학교자체에서 지급함)
- 3) 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기초훈련을 받은 교사를 배치한다. 차후에 본훈련 계획을 별도로 시달할 것임.

4. 도서관 시범학교·라인학교 운영

- 1) 도서관 시범학교 또는 라인학교로서 지정된 학교는 모범적인 학교도서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타교에 대한 시범활동을 강화한다.
- 2) 시범학교 및 도서관 라인학교는 11월 이전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운영보고회를 개최한다.

5. 도서관운영 일반

- 1) 교과지도, 특활지도, 시사기회교육, 생활지도,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교육 활동 영역에 있어서 도서관시설 및 자료와 연결을 지우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 ① 모든 교사는 직어도 각자의 지도영역에 관한 도서관자료(도서 및 비도서자료)만은 그 종류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각자 목록을 작성하여 항시 좌석에 비치하고 활용한다.)
 - ② 특히 학습지도안의 [자료란]에는 단원별로 관련자료의 목록을 반드시 기재하고 학습지도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각 학교에서는 학년도 초(3월중) 서목작성법에 관한 자체연구회를 가진다.
- 2) 도서 및 도서관이용지도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인 도서관 교육을 실시한다.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계획과 학년별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 3) 향토자료의 수집정리 및 대지역사회봉사에 힘쓴다.
- 4) 이미 확보된 도서관 자료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 ①도서의 반납연체근절 ②도난방지 ③오손방지 ④수리, 보강 등에 힘쓴다.
- 5) 도서관이용에 관한 통계를 유지한다(학생, 교직원, 향토주민별 이용상황 파악)
- 6) 도서관 자료의 정리에 있어서는 가급적 우리 나라의 표준용구(한국십진본류법, 한국목록규칙)를 사용한다.
- 7) 목록카드의 작성은 정확을 요하며 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가급적 전문가가 작성한 [인쇄카드]를 구득하도록 한다.

- 8) 신문 잡지 및 버어티칼 파일을 비치활용한다.(잡지 중에는 교사용 및 학생용의 과학잡지를 각 1종씩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9) 도서관비품은 규격이 맞고 기능적이며 디자인과 채색이 현대적인 것을 택한다.(비품구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서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0) 사서교사는 교무조직상 교장(교감)에게 직결되는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당수업시수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경감한다.
- 11) 한국도서관협회에의 가입, 지역별 사서교사의 서어클활동을 권장하여 사서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12) 본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운영지침서를 통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경상남도의 이와 같은 장학 지도 계획은 타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과 의지가 경상남도의 경우에 비해 낮은 지방에서도 경상남도의 영향을 받아 나름의 학교도서관 장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경상남도와 가장 인접한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경우 1966년도 장학계획의 하나로 학교도서관 육성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¹⁵⁾ 계획의 내용과 그 구체성에서 경상남도의 것에 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명문화된 학교도서관 장학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그 내용과 수준은 다소 미숙하지만 장학 계획안에 학교도서관 육성 계획을 포함시키는 시도교육위원회가 나타나는 것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장학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김두홍은 1964년의 전국학교도서관대회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방 교육행정 당국의 장학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이 발표에서 그는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장학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만약에 문교부나 지방 교육행정 당국이 그들 일선 교직원들과 때를 같이하여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지도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원조하

15) “학교도서관 육성계획-부산시 교육위원회”, **도협월보**, 7권 1호(1966. 1-2), 49쪽.

여 왔다면 성과는 지금의 수배에 달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전술한 1,000개의 학교도서관이 일부 시·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들 시·도는 충남, 전남, 경남 등으로서 교육행정 당국이 학교도서관 운동의 초기부터 비교적 계획성 있는 지도를 행하여 온 지방인 것이다. 이 말은 전국의 학교도서관의 조속한 발전과 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모든 시·도교육위원회가 같은 보조로 그 지도에 나서야만 한다는 말로써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중략)

금후에는 학교도서관 운동을 일선 교직원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들의 힘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육행정의 한 당연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¹⁶⁾

2. 도서관 라인학교 운영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학교도서관 장학 활동을 보여주는 한가지 좋은 예는 도서관 라인학교의 운영이다. 이 도서관 라인학교는 1964년의 장학지도 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된 프로그램으로서, 김해(구포교)에서 진주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있는 20개의 학교(초등학교 10개교, 중등학교 10개교)를 도서관 라인학교로 정하여 학교도서관 시범 활동을 전개하게 한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타시도의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기발한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운동이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라인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도서관 운영의 모든 면에서 타 학교에 앞서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지정 학교의 도서관이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학교의 도서관 운영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다. 도서관 라인 학교를 운영한 취지와 관련하여 김두홍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기에 깔린 전략적인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부산에서 진주까지 나 있는 큰 도로와 거기에 물려 있는 작은 도로를 중심으로 학교들을 여러 개의 군으로 나누어 묶은 것입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도로를 따라 있는 각 학교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도서관 라인 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

16) 김두홍, "도규모 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장학지도", **도협월보**, 5권 9호(1964. 11), 24-28쪽.

이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도로에 연해 있는 학교들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시범을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시범 학교도서관군이죠. 어느 라인에 들어 있는 어느 학교에서 시범 발표회를 한다고 공시를 하게 되면 지정된 날 그 라인에 속한 학교의 사서교사들과 교장들이 모두 모여서 발표하고 토의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¹⁷⁾

교통이 편리한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도내 타 학교에서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타시도나 교육행정 당국의 견학 및 시찰에도 용이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5년의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에서는 도서관 라인학교의 수를 대폭 늘려 초등 학교 27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45개교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1966년의 장학계획에서는 도서관 라인을 두 개로 나누어 김해에서 진주까지를 A라인, 동래에서 울산까지를 B라인으로 하여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을 모두 포함하는 시범학교군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도서관 라인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모범적인 학교도서관을 육성하여 도내외의 교원들에게 운영보고회 등을 통해 시범함으로써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된다. 가령 1965년 11월 13일에 진주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개최한 도서관 라인학교 운영보고회에는 도내 13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기도 한다.¹⁸⁾

3.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안 마련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학교도서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1964년 마산 성지여중고교를 연구 학교로 지정한다. 마산 성지여중고교에서 중등학교용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을

17)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18) “뉴우스-도서관 라인학교 운영보고회”, **도협월보**, 6권 10호(1965. 12), 45쪽.

만들어 2년간의 교단 실험을 거친 후 발표하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경남도교위의 표준적인 교육과정 시안으로 채택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 도서관 교육이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교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이 타시도에 비해 더욱 더 실제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안은 도서관 교육의 목표, 학년별 도서관 교육의 목표, 학년별 지도영역(지도영역, 시수, 씨퀀스), 연간지도계획(주 배당표), 단원의 전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시간에 교수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무척 발전적인 교육과정 시안임을 알 수 있다.¹⁹⁾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교육과정 시안을 토대로 도내 각 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도서관 교육과정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게 된다.

이처럼 표준적인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안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독서시설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학습 자원 센터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성지여중고에서 성안한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안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학교도서관계에서 1964년부터 전국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사업의 결과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도서관 교육을 시행하고 그것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제공하는 언급이 있다.

1964년의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산물은 전국 각급 학교에서 '도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를 시작하였음이다. 여주의 동국민학교, 진주의 중앙국민학교를 비롯한 경남의 수십개 국민학교, 부산의 동래중학교, 마산중학교와 성지여자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경남의 수개 중고등학교에서 도서관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교육실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사실, 학교도서관이 연일 초만원을 이룬다 할지라도 열람자의 대다수에게 소설 나부랭이나 읽히고 있는 현상으로써는 우리의 목적은 10분의 1도 달성되지 않는다. 현대교육의 중심과제는 학습지도법의 개선에 있고, 학습지도법의 개선의 목표

19)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도서관 교육과정 시안", **교육경남**, 25호(1966. 3), 29-77쪽.

는 자주학습에 있으며, 학교도서관 최고의 목표는 자주학습의 능력과 습관을 함양하는 데 있다. 자주학습의 능력과 습관의 함양은 단순히 도서관의 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도서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인식이 공론화 되고 개별 학교 현장에서 나름대로 실험을 하던 중에 마산 성지여중고를 지정하여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의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4. 도서관 시범·연구 학교 운영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라인학교 운영과는 별도로 활발하게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려고 노력한다. 시범학교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1964년의 학교도서관 장학 계획에서는 각 시·군에 1개교 이상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196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도서관 시범학교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도시형 2개교, 소도시형 2개교, 농촌형 1개교 등 모두 5개교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많은 학교가 도서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하게 된다. 가령 1965년 12월 2일 통영여중고에서 김두홍 장학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시범학교 합동발표회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도내 사서교사 80여명이 참석한 이 합동 실천보고회에서는 5개 중고교에서 도서관 운영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발표 학교와 발표 주제는 군북중의 「도서관 자료를 통한 특별활동」, 진전중의 「농촌 학교도서관 운영 및 그 문제점」, 태화중의 「도서관 설치를 위한 연차 계획」, 통영여중고의 「교실 겸

20) 김두홍, "1964년의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5권 10호(1964. 12), 10쪽.

용 도서실의 운영과 그 문제점, 황천중의 「시사기획 교육과 도서관 자료의 연결」 등이다.

그리고 도서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타 학교의 도서관 운영에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1962년 11월 6일에는 고성농업고등학교에서 그간 연구해온 「농촌학교 도서관의 운영」이라는 주제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도내 중고교 사서교사와 교장, 고성군내의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한다. 그리고 1963년과 1964년에는 마산 성지여중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도서관을 통한 조사학습의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게 하며, 1966년에는 낙동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현장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게 한다. 이와 같이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전도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고무하고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 라인학교 운영과 함께 시범·연구학교 운영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이 도 전역에 골고루 설치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5. 사서교사 교육과 배치

중앙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강습회와 별도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일반화를 위하여 사서교사 교육과 배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윤근 교육감은 전문 분야의 교사 강습을 통하여 양성된 인력을 도내의 학교에 골고루 배치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였으며, 도서 벽지나 산간 지방의 학교에도 교육받은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도 전역이 균형 있게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1963년에는 마산지구, 진해지구, 울산지구로 나누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현장 실습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현장 실습에는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김홍수가 강사로 활약하였으며 마산의 성지여고(5.27-6.5), 진해여중(6.8-6.12),

울산제일중(6.14-6.18) 등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제정 공포로 사서교사 배치와 자격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보되어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자격 취득 강습이 실시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문교부가 공동 주최한 강습회와는 별도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도내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강습을 실시하게 된다. 1965년 여름 방학부터 전후반기로 나누어 모두 320시간을 이수하게 하는 이 강습회에서 매년 100여 명의 유자격 사서교사를 양성하게 된다.

또한 당시 사서교사는 교과를 담당하는 동시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겸임 형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도교위에 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여 사서교사로 하여금 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10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임강사 TO를 1명씩 증원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서교사의 교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사서교사는 도서관 업무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의 혜택을 받게된 학교는 진주고, 울산제일중, 함양중, 통영중, 진해여중, 마산동중, 김해고, 낙동중, 진주중, 마산중 등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타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기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열의를 자극하는데 무척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을 것이다.

도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서교사 교육과 합리적인 배치 전략에 의해 경상남도는 타시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서교사를 보유하게 되고 학교도서관 설치율도 월등히 앞설 수 있었던 것이다.

6. 교장, 교감, 교사의 도서관 교육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현장에 튼튼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선 학교 경영자와 교원에 대한 계몽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사실 도교육위

원회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활동은 이런 경향을 다소간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경영자와 교원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계몽 활동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예가 도내 중고교 교장, 교감 및 시군 교육장 연수 강습에 도서관 과정을 편입 시킨 일이다. 1963년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300여 명의 교장, 교감, 시군교육장이 두 파트로 나누어 연수 강습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 김두홍 장학사를 강사로 하여 4시간의 도서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강습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장과 교감은 자연스럽게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고무하게 되며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도서관 연수 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된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3년 동안 도내 약 150명의 사서교사로 하여금 자기 학교나 인접 학교의 교사들을 분담하여 지도하게 하는 교육이다. 도서관계와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경상남도도내 전 교원은 60시간의 도서관 교육을 받게 되며,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에 완전히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만다.

경상남도 지방에 학교도서관이 학교 현장에 고루 퍼지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교원에 대한 교육이 적지 않게 기여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사서교사와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주도되는 학교도서관 운동이 교과 학습에 밀착되어 전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IV. 창의적 재원 조달 활동

도교육위원회의 의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육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와 계획은 불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실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원 마련의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학생근로 활동을 통한 재원 조달

1963년 학교도서관 지도 계획에 의하면 경상남도 당국에서는 도서구입비로 초등학교는 학급당 연 1,000원, 중학교는 2,500원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산은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도당국의 지원과 학생자치회비에서 나오는 재원만 가지고는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당국에서는 독특한 재원 조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그것은 '학생근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삭줍기, 폐품수집, 퇴비생산, 재배사육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보리와 벼를 추수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도 하고 폐품을 수집하기도 하고 퇴비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학교의 유희지에 채소나 묘목을 심기도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재원이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개발된 이러한 방법들은 무척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토착적이기도 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당시 교육감과 장학사로부터 이와 같이 창의적이며 토착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을 들어보자.

그때 우리 나라는 국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을 하려고 하니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 도저히 할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경남 교육감을 하면서 재원 염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재원 염출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학교별로 보리 이삭, 벼 이삭을 주워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퇴비를 만든다. 그때 급비(회학비료)를 쓰고 퇴비가 별로 없어서 퇴비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에 공지(空地)를 없앤다. 학교에 교육 시설 이외에 방치되어 있는 공지를 없앤다는 것이지요. 그 공지에 묘목을 심고 채소나 다른 돈이 되는 작물을 기르고 하는 것이지요. 가령 피마자 같은 것을 길러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²¹⁾

그때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운동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의식주 해결하는데 급급했지 다른데 정신 쓸 여유가 없었죠. 학교에서도 교과서하고 최소한의 교실이 요구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서 학교도서관을 꿈 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비상 수단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폐품 수집과 이삭줍기입니다. 이삭줍기는 보리 이삭하고 벼 이삭인데, 사실 보리 이삭은 주울 수 있어도 벼 이삭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벼 추수기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벼 이삭을 주워서 학교도서관 도서를 확보하도록 했죠.²²⁾

2. 재원 조달 활동의 성과

학생근로에 의한 재원 조달의 의미가 그 성격적인 특이성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재원 조달 활동이 큰 의미를 가지는 진정한 까닭은 그것이 이루어낸 성과에 있는 것이다. 이 창의적인 활동으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그 명성에 손색이 없는 내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초두에서 제시한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장서와 학생 1인당 책수에 있어 경상남도가 타시도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원 조달 활동의 성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두홍은 그 성과가 아니었다면 경상남도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가 그렇게 많이 수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

21) 이운근 선생과의 대담.

22)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언하기도 한다.²³⁾

그럼 당시 전국학교도서관 대회에 보고된 현황을 토대로 학생근로에 의해 마련된 재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자. 1962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만 이삭줍기 운동으로 1,878,601원을 모았고, 폐품수집 등에 의한 수입을 합하여 200만원이 넘는 도서구입자금을 마련하였으며, 1963년의 경우에는 이삭줍기로 200,462원, 폐품수집으로 247,595원, 기타 276,617원 등 모두 724,974원을 마련하게 된다.²⁴⁾ 이 보고에 따르면 1963년에는 전대미문의 대풍수해로 인하여 큰 기대를 걸었던 이삭줍기 운동이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의 손으로 70만원이 넘는 도서구입비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1964년에는 학생근로에 의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64년도 전국학교도서관대회에 보고된 1964년 1월부터 7월까지 학생근로를 통해 마련한 도서구입비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학생근로에 의한 도서구입비 현황(1964. 1~7)

구분 학교	보리이삭줍기	폐품수집	기타	계	구입책수
초등학교	5,845,790원	222,260원	155,943원	6,223,933원	85,470권
중등학교	1,203,325원	52,248원	78,315원	1,333,888원	10,918권
계	7,049,115원	274,508원	234,258원	7,557,821원	96,388권

1964년의 경우 비 이삭줍기에 의한 성과가 포함되지 않은 7개월간의 성과만으로도 거의 10만 권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1년간 학생근로를 통해 마련한 도서구입비는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경상

23)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24) 김두홍,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현황", **도협월보**, 5권 1호(1964. 1·2), 38-44쪽.

남도의 학교도서관 장서량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학생근로에 의한 성과가 중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초등학교 도서관이 그 상대적 후진성을 만회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근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서구입비를 마련하는 노력은 경상남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타시도에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단지 비교적 학교도서관 운동이 활발했던 전라남도에서는 경상남도와 같은 학생근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교부 장학위원이었던 장일세는 전라남도 지역 학교도서관을 돌아본 후 밝힌 소감에서 학생근로에 의한 도서구입비 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책수에 있어서는 좀더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문교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하여 아동 1인당 1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에 있어서는 학생자치활동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1인당 2, 30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 실정으로는 아동 1인당 1년에 10원이라는 금액마저 아동들에게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보면 도서관 자료구입비 문제는 큰 난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리이삭, 벼이삭 줍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것을 팔아 도서구입비로 충당하거나 휴지나 빈병을 모아서 역시 이런 비용에 충당하면서까지 도서관 자료구입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다. '터끝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몇 년 노력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4, 5천권의 장서와 수십 종의 시청각자료를 구비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노력과 열의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난관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참으로 고무적이었다.²⁵⁾

25) 장일세, “전남지구 학교도서관 시찰소감”, **도협월보**, 4권 7호(1963. 9. 10), 29-30쪽.

3. 재원 조달 활동의 원동력

그럼 이처럼 자발적인 도서관구입 재원 조달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일선 학교경영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 활동과 학생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원동력은 무엇이였는가. 그 원동력은 도 교육행정 당국의 끈질긴 지도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도교육위원회는 학생근로의 방법을 채택하고 계획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학교 현장에 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다. 도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학생근로 활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보고 체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학교도서관을 내실 있게 키워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현장의 실천을 고무하고 독려한 결과에 의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윤근과 김두홍의 증언은 이 사실을 잘 증명해준다.

일이 잘 되는 건 교장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교장 교감들이 안 할 도리가 없게 만드는 거지요. 가령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지시하고 나서는 항상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리 이삭 얼마 모았다, 퇴비 얼마 깔았다, 묘목 얼마 심었다, 일일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나 하면 불시에 검사를 합니다. 어디 출장을 가다가 어느 학교든 불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실제로 묘목이 몇 그루 있는지 세어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보고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속여서 보고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가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장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교장들이 무척 수고를 많이 했어요. 물론 교육을 평장히 발전 시켰다는 면에서는 무척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수고한 교장들을 만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람이 많았다는 거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니까.²⁶⁾

각 학교에서 벼이삭 얼마를 주워서 돈을 얼마 벌었고, 도서를 몇 권 구입했는지 도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으로서의 그

26)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육위원회 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교장들이 거짓말을 할 지도 모르니까 장학사가 장학지도를 나갈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강하게 지시를 했죠.²⁷⁾

이와 같은 힘에 의해 전개된 학생근로 활동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전략적 측면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그것은 도서관 운동에 대한 신념과 열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와 그 실천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학생근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에피소드도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그 만큼 운동을 전개하는 힘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애들이 학교에서 보리 이삭, 벼이삭을 주워 오라니까 안 가져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남의 벼가리 쳐 놓은 것을 가져온다든지 남의 논에서 훔어서 온다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교육감실에 와서 애들한테 도둑질시킨다고 따져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당신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애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치겠느냐. 지금 우리 나라 주어진 여건이 전무한 상태 아니냐. 제대로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니깐 보리 이삭이라든지 벼이삭이라든지 이런 걸 주워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신문에 내라 그랬어요. 교육감이 시켜서 남의 벼가리를 가져오고 남의 논을 훔어 온다고 신문에 내라 말이야. 우리 나라가 지금 돈이 어디 있냐. 국가에서 봉급도 못 주는 처지에 어디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느냐. 우리가 급하기는 급하고, 교육은 해야 되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 밖에 더 있냐 말이야. 그리고 보리 이삭, 벼이삭 주워 오라 그랬지 누가 남의 벼가리 빼 오라고 지시한 적 있냐 말이야. 그랬더니 신문에 안 내더라구요. 신문에 안 내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충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그때 보리 이삭, 벼이삭 줍기로 모은 것이 일년에 수백 가마니가 나와요. 상당한 양이죠. 그걸 모두 팔아서 도서관 체육 시설을 마련했어요. 돈이 많았죠.²⁸⁾

27)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28)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학생들에게 일종의 변태적인 잡부금을 거둔다고 지방 신문에 크게 났어요. 먹고살기에도 바쁜 이 때에 학생들이 집에서 쌀이나 버를 도서 구입하기 위해 퍼가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두홍 장학사가 왕초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감 지시를 받아서 각 학교 교장들에게 언론 기관 사람들을 불러 이삭줍기해서 구입한 도서를 보여주라고 공문을 보냈죠. 이삭을 얼마 주워서 돈을 얼마 벌고, 그 돈 가지고 산 책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언론 기관에 보여주라고 도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언론 기관이 그걸 보고 난 후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삭줍기를 해서 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찬동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²⁹⁾

V. 운동 전개와 특성

1960년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면서 도규모의 운동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전개되는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사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운동이 전개되는 몇 가지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육행정 당국의 정열적 리더십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 근대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 단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그 운동의 수준이 크게 발전하는 과정에는 교육행정 당국의 정열적인 리더십을 결정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상남도 지방에 운동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요인이 도교육위원

29)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회의 행정력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교육의 최상층부에 있는 교육감과 교육행정이 현장에 실현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장학사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 운동이 주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지도자의 의지와 불굴의 노력에 의해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찬란한 한 시대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

2. 체계적인 장학 활동

교육행정 당국의 핵심 인사들의 열의만 가지고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중요한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경상남도 도교육위에서는 매년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장학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공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핵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장학 활동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치, 사서교사 확보, 장서 확충, 일반교원 교육 등의 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체계적인 장학 활동은 타시도 교육행정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중앙 교육행정 당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학교도서관 운동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3. 전도적 운동 전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타시도에 비해 앞섰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설치율과 사서교사 배치율이 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도의 전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전도적인 현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 지역

의 명문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산간 벽지 농어촌 지역까지 학교도서관이 골고루 설치된다는 것은 운동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보편화는 지속적인 사서교사 양성과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인력 배치와 전도의 학교경영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학교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상의 근저에는 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식하고 모든 교육 현장에서 실시 운영해야 한다는 교육행정 당국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4. 전략적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장학 계획이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운동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전략적인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었다. 이것은 운동을 전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성과와 직결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 못지 않게 운동의 지도력을 풍성하게 확보하고 있던 타시도에서 경상남도에 버금가는 성과를 올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전략 전술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운동 지도자들은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이 있었던 것이다. 가령 집단적인 도서관 시범학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라인학교와 도서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학생근로 활동 등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가장 특징적으로 성장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의적이며 지방의 여건에 맞는 토착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능력이 운동의 결실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나오며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교육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상층부에서 주도하여 전개시킨 이상적인 형태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지도 세력의 의지와 전략적 탁월성에 의해 운동의 성과는 경이적이라 할 정도였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는 타시도의 운동에 좋은 본이 될 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외국의 도서관 전문가들도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에 대해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린바 있다.

타도에 비하여 부유하지도 않은 경상남도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는 학교도서관 육성이 그 지방 교육기구의 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경남에는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있었고, 도서관 설치를 위한 관의 지원이 있었다.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은 예리한 통찰력과 건전한 계획과 효율적인 지도력과 그리고 비상한 노력인 것이다. 한 도가 이와 같은 원동력을 능히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타의 지방에서도 어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⁰⁾

그런데 모든 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강점 속에 단점이 도사리고 있는 법.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강력한 지도력이었던 교육감과 장학사가 운동의 정점에서 떠나게 되자 급격한 변화의 조류를 타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경상남도 지방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긴 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는 찬란한 운동 전성기의 상황과 비교되어 그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김두홍 장학사는 1966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한국도서관협회로 옮겨가게 되고, 이윤근 교육감은 1969년 부산시 교육감으로 옮겨가게 된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화려한 성과를 뒤로 한 채.

30) David Kaser 등 지, 김두홍·정필모 역, 앞의 책, 56쪽.

내가 경남 교육감을 한 번 더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산 교육감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 영전을 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좌천이지요. 내가 경남에서 한 번만 더 했으면 경남이 굉장한 발전을 했을 겁니다. 내 후임으로 경남 교육감에 김주익이라는 분이 왔는데 과학교재 센터라든지 체육 센터, 도서관 모두 안중에 없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했으면 꾸부러지지 않는 경남의 학교도서관이 되었을 텐데...³¹⁾

이윤근 교육감이 1969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생각이나 방침이 그대로 지속된 거지요. 그런데 경남에는 도교육감으로 다른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너무 강압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불평이 있으니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약해지지요. 교실도 없고 여러 가지 교구나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될 판인데 책 살 돈이 어디 있느냐, 또 교실도 부족한 판인데 도서관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경남지역에 일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이 컸지요. 그래서 경남은 학교도서관이 일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경남 지방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위축되기 시작한 겁니다.³²⁾

강력한 지도력이 소멸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 팽창하는 교육 수요와 불비한 교육 여건 속에서 일선 학교 경영자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강력한 교육행정 당국의 지도에 의해 발전한 운동은 어떤 약점을 가지는가. 이상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서교사, 학교 경영자, 교육행정 당국간의 역할 범위와 인식 비중은 어떻게 융합되어야 하는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그 화려한 위업에 걸맞게 많은 의문을 과제로 남겨둔 채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다.

31)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32)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참 고 문 헌

- 경상남도 교육국, "1963년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지도계획." **도협월보**, 4권 2호(1963. 3). 32-33쪽.
-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경남교위의 66년도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도협월보**, 7권 4호(1966. 5). 31-34쪽.
-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편, **학교도서관 경영의 실제**. 부산,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1960.
- 김두홍, "경남의 학교도서관 운동." **도협월보**, 1권 3호(1960. 5). 14-15쪽.
- _____,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현황." **도협월보**, 5권 1호(1964. 1·2). 38-44쪽.
- _____, "학교도서관 장학지도 계획 -경남도교위의 64학년도-" **도협월보**, 5권 2호(1964. 3). 6-7쪽.
- _____, "학교도서관의 장학활동 -제2회 전국학교도서관대회 발표논문." **도협월보**, 5권 1호(1964. 1·2). 20-23쪽.
- _____, "1964년의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5권 10호(1964. 12). 9-12쪽.
- 김효정, "한국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1996.
- 이규범, "학교도서관 운동의 현재와 진로." **도협월보**, 7권 6호(1966. 7·8). 28-32쪽.
- 이창열, "전라북도 학교도서관 현황." **도협월보**, 5권 10호(1964. 12). 52-54쪽.
- 이철희, "문교정책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위치." **도협월보**, 6권 3호(1965. 4). 25-26쪽.
- 장일세, "도서관법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서 및 사서교사 양성면에서-" **도협월보**, 4권 6호(1963. 7·8). 10-17쪽.
- _____, "전남지구 학교도서관 시찰소감." **도협월보**, 4권 7호(1963. 9·10). 28-33쪽.
- 조재후, "1968년도의 학교도서관계." **도협월보**, 10권 1호(1969. 1·2). 28-32쪽.
-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1945-1973**.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 최근만, "1962년의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3권 8호(1962. 12). 10-14쪽.
- _____, "1965년도 학교도서관의 회고." **도협월보**, 6권 9호(1965. 11). 11-13쪽.
- 한국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사:근·현대편**. 서울, 풀빛, 1993.
- 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국도서관 실태조사(하)**.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Kaser, David 등저, 김두홍·정필모 역, “아시아 8개국의 도서관 발전.”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대담 자료>

- 김두홍 교수와의 대담, 1987. 5. 19, 14:00-15:00, 김두홍 교수 연구실(부산여대)
- 이규범 학장과의 대담, 1987. 6. 2, 14:00-15:30, 부산교육대학 학장실.
- 박태신 교장과의 대담, 1987. 5. 20, 14:40-17:00, 부산 광안여중 교장실.
- 이종남 교장과의 대담, 1987. 5. 19, 14:00-16:00, 부산 남여중 교장실.
- 이병수 교장과의 대담, 1987. 5. 22, 14:30-16:40, 부산 사상중 교장실.
- 전희준 선생과의 대담, 1987. 5. 20, 14:30-16:30, 부산 주례여고 상담실.
- 엄영섭 선생과의 대담, 1987. 5. 21, 15:00-17:00, 부산 낙동고 상담실.
-
- 김경일 선생과의 대담, 1998. 5. 4, 11:40-16:20, 부친역 근처 커피숍과 식당.
-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1998. 2. 19, 14:00-16:00, 김두홍 선생 자택.
- 류탁일 교수와의 대담, 1998. 2. 24, 16:00-17:00, 류탁일 교수 연구실.
- 박용두 선생과의 대담, 1998. 5. 15, 12:00-16:00, 박용두 선생 자택.
-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1998. 2. 13, 14:00-16:30, 부산교육대학 앞 「늘노래 선교단」 사무실.
-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1998. 2. 18, 10:00-12:00, 이윤근 선생 자택.
- 조재후 선생과의 대담, 1998. 5. 2, 09:30-11:00, 서울 정화여상 교장실.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Movement of Kyungsangnam-Do in 1960s

Jong-Sung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odern school library movement of Kyungsangnam-Do with a special reference to 1960s. Keeping an eye on the activities of the local board of education, the writer sorts out four characteristics in the school library movement of Kyungsangnam-Do in 1960s. Those are as follows;

1. The passionate leadership of the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a provincial school inspector.
2.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ctivities of the local board of education in supervision of school library.
3.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y movement covered the whole province.
4. The effective operations of the strategies for school library movement.

* Lecturer,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